



**십자가** 속에는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영원한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을  
**영흥교회로**  
초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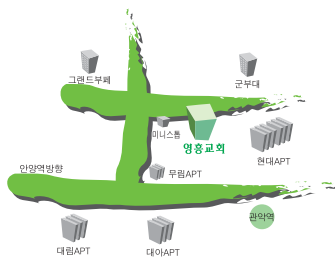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흥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성령  
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당**신도 영흥교회에서 응답받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  
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것 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영흥교회에서 축복  
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 영흥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 영흥교회는 1981년 6월 28일에 김형석 목사님에 의해 설립되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경성노회의 중경시찰에 소속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 영흥교회는 1.하나님 중심, 2.말씀중심, 3.교회중심의 칼빈주의적 장로교의 복음적 신앙을 지킵니다.

## 영흥교회 위치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7-5  
대표전화 : 471-7822, 8922 / FAX. 472-3967  
홈페이지 : [www.youngch.or.kr](http://www.youngch.or.kr)

## 영흥교회 예배시간

새벽기도	1부	5:00	시온성전
	2부	6:00	본당
주일 낮	1부	7:30	본당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2:30	본당
삼일밤	오후	7:00	본당
금요심야	오후	9:00	본당
유치부	주일	11:00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11:00	시온성전
초등부	주일	11:00	초등부실
중고등부	주일	9:00	중고등부실
청년부	주일	9:00	청년부실

영흥교회가 전하는 행복이야기

# 살구나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성막금 촛대 등잔이 살구꽃 형상, 새 생명과 깨어남의 뜻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는  
예배를 더욱 향기롭게 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의 화음은  
천사의 목소리같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임마누엘성가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총만으로』 2p  
썬의 스케치북 『가정예배로 자라는 아이들』 6p  
명끝까지 『쿠르드 민족,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8p  
믿음생활faq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p  
목회 칼럼 『사연을 듣기 전에 판단하지 맙시다』 15p  
마르다의 밥상 『봄! 내 안에 너 있다~!』 16p  
나의QT 『초등부 말씀묵상』 18p  
패밀리기도회 『가족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시작』 20p  
행사소개 / 캠페인(함께 지키는 에티켓) 23p

2013년 4월호



## 하나님의 충만으로

본문 말씀 | 여호수아 6:12-21

“오직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말씀〉 에베소서 3:14-21

14.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세상이 과학과 문화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공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문화와 과학은 때로는 하나님을 뛰어넘고 있으며, 그것이 종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을 세상의 문화로 채우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수만 개의 부품 중에 중요한 부품 하나가 없다면 그 차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우리는 온전해 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을 통해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속사람이 건강하라고 기도합니다 (16).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웰빙음식과, 헬스, 다이어트를 하면서 육체의 건강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만 크리스찬도 속사람의 건강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우후죽순(雨後竹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우후죽순’처럼 잘 자라는 것은 땅 밑에서 뿌리가 뻗뻗히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의 힘으로 작은 죽순이 하루 아침에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뿌리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생명력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여러분...! 우리의 속사람도...!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관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살게합니다.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체를 통제하고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옷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병들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아무리 값비싼 의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육체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육체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권면합니다.

미국에서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한 운전기사가 매일 매일 같은 노선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년 동안 매일 그 길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기사는 마음에 가득 찬 허탈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버스를 몰고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



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잠시의 해방감을 느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때 운전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공허하고 답답해서 살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운전기사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일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매일 매일 같은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려 본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1:2)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된 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만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남는 것은 허무함과 공허감 뿐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바꿀 정도로 땅에서 만족을 찾았지만 어떤 사람도 여자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좋은 남편을 찾고 찾았지만 남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갈급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우물가에서, 주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여인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생명수와 영생의 빵의 의미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 주님을 만났을 때 땅에서 얻을수 없는 참된 만족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처럼 믿

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를 믿으라는 권면입니다(19).**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여호와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봄철이 다가오면 모내기를 합니다. 농부들은 저수지에 물이 차고 넘치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수지가 말라있으면 먼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저수지가 물이 없다면 매일 같이 물을 끌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풍성한 저수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현대인들처럼 인생걱정, 돈걱정, 자식걱정으로 걱정과 염려의 인생을 살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채워주시를 고백하기를 시 107:9에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인생의 공허함을 세상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하는 속사람이 있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내리려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 오직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가정예배로 자라는 아이들

글 | 이해진 집사 취재 | 민은순 권찰

매 주 목요일 밤 9시, 잠 잘 준비를 마친 세 아이들과 방 바닥에 둘러 앉는다. 각 자 성경 책을 펴고 찬양을 드리는 시간,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먼저 해야 한다며 아웅다웅이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주제씩 조금씩 나누어 읽어 나가는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읽은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기도 한다.

‘성경 먹이는 엄마(최에스터)’, ‘말씀 심는 엄마(백은실)’ 등의 책을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말씀암송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면 참 좋겠다는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2~3년 전쯤 어린이 주일 헌신예배 시간이었다.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목사님께서 세상의 교육은 그토록 중요시 하면서 신앙교육은 얼마나 시키고 있느냐는 부모들을 향해 던지신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당장 아이들을 앉혀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이들이 깨 있을 시간에 퇴근한 적이 별로 없는 아빠인지라 과감히 포기(?)하고 엄마의 인도로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가정예배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매주 드리게 된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어간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 30분 정도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마저도 어기지 않고 꾸준하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하필 그날 따라 엄마 기분이 엉망이 된다거나 평소에는 그 시간에 말뼉말뼉 뽀뽀하기만 한 아이들이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어 버린다거나 하는 일들이 슬하게 일어났다.

예배 드리는 과정 또한 만만하지 않았다. 누워서 혹은 비스듬히 기대서 찬양도 드리는 등 마는 등, 사도신경도 알고 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따라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예배를 접고 한 판 뜨고 싶은 마음이 일 때도 수 없이 많았다. 헌금위원인 막내

는 말씀 배우는 시간이 지루해서인지 예배도중 자리를 떠서 할머니 방에서 놀다가 끝날 시간이 돼서야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아무려면 어떠랴,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노력하고 사모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은 후 지금은 형식과 틀에 연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깨달아가고 있다. 하는 등 마는 등 하던 아들도 가끔 유년부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축복하시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선생님께로부터 뜻밖의 칭찬이 들려오기도 하며, 다섯 살 짜리 막내는 벌써 찬송가를 줄 줄이 외우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매년 한차례씩은 꼭 페럼 등으로 입원하다 보니 9세가 될 때까지 입원만 13번 했던 아들이 작년부터는 병원신세를 지지 않고 있다. 또 아이들 1년간의 병원 영수증을 정리해보니 예배 드리기 이전과 절반이상이나 차이가 나 아이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자녀들을 엄마의 생각과 가치관의 틀에 맞추어 강요하다 보면 딱 엄마만의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다. 그 틀을 주님께 맞춘다면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이 있지 않을까?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이끄시기를,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나는 그저 도구로 사용하시기만을 기도한다.





## “그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뀌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한 후 특별히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아가는 쿠르드 민족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여졌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1월, 저는 2주 동안 터키 동부로 현장 중보를 위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중보팀은 복음을 전하는 일 뿐 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역과 어두움의 견고한 진과 이슬람의 영이 가득한 그 땅의 영적 기류의 변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12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우리 팀은 가기 전부터 이사야, 요한복음, 로마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사단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목 디스크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마음까지 힘들어지면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했고, 국경 분쟁 지역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장에 갔을 때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한 부담감, 또한 어린 딸들에 대한 염려, 남편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의 것이요 여호와 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사 22: 27-28)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닌 대부분의 지방은 선교사님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추방 당하시기 때문에 가시기 어려운 국경 지역이라서 단기 팀들이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삼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게 부여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 1.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는 민족

터키 정부로부터 차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은 많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불신의 골이 깊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용서는 기대할 수 없었고 99.9% 이상이 무슬림으로 살아가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들의 삶은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고 얼굴에서는 외로움과 슬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자들은 PKK단이 되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여성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젊은데도 글을 읽지 못하고 10대에 결혼을 하여 30대까지 6~7명의 자녀를 낳고 가정에서만 머물며 바깥출입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외출할 때는 남편과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히잡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물론 인격적인 대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종교법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어서 여러 명의 부인이 한 남편을 바라보며 같은 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성들의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기도해 줘도 울면서 기뻐하며 고마워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거나 서로를 용서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 2.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B도시로 지방 사역을 갔을 때 한 현지인 집에 가서 교제하다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얘기할 때 강하게 부인을 하며 TV 소리를 크게 하면서 방해하고 거의 쫓겨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거짓된 신에 속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가정에 방문했을 때 우리를 환대해 주며 끝까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만나게 하시며 기쁨을 주셨고 밤에는 외국인이 왔다고 여러 명의 친척들까지 와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며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룻밤을 현지인 가정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듣고 더 상한 심정을 갖게 하였고 아침에 우리를 배웅하던 며느리의 슬픈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C도시로 지방 사역을 갔을 때 그 지역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의 감동과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도 없고 드러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땅에 너희들이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니 너무 고맙다는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우리 조 모두가 울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땅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때 온 동네 아이들 수십 명이 우리의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현지어로 된 찬양 몇 곡을 가르쳐 주고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서로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여서 몇몇 가정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우리를 환대해 주며 주변에 사는 친척들까지 와서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기뻐했습니다. 형편은 어려워 보였으나 방 하나를 우리를 위해 잠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는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에 속아서 애잔 (모스크 사원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시간을 알려줌) 소리가 나면 카펫을 깔고 우리 앞에서도 알리에게 절을 하는 종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1박2일을 머물며 서툰 터키어로 사전을 서로 찾아가며 교제하고 함께 마음껏 찬양을 하였고 마음을 열었을 때 한 사람씩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엄마와 딸 다섯 명이 모두 영접하고 주변의 사촌 몇몇이 영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따로 전할 수가 없어서 엄마와 함께 전할 때 기쁨으로 영접하며 터키어로 된 신약성경을 주었을 때는 꼭 읽어보겠다고 기뻐하며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과 가정을 만나게 하였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돕는 자를 보내 주셔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서 육신은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매 순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만났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영혼은 D도시 사역 중에 만난 K청년입니다. 미 국인 선교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 알파코스까지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가족들에

게 조차 기독교인임을 말하지도 못하고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K청년을 보면서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청년과 교제하며 그 형제가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다고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헤어졌는데 그 형제의 외로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3.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통한 깨달음과 회개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번 단기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한번의 이벤트에 불과하며 한국에 돌아가서도 만난 영혼과 밟은 땅 그리고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말씀을 전하시면서 배설물은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독이 되는 것이지 아까운 것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몸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러야 하는 삶이 당연한 것이며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내 것(가족, 시간, 물질 등)을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회개가 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조금의 헌신을 하면서도 내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축복까지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조명하게 하시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 4. 결단과 소망

아직도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만났던 영혼들과 그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천 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도 못한 민족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하기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민족들에게 나가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의 영적 기류가 바뀌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 가운데 사용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취재 이미미 집사



#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자연, 역사, 성경, 성령,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가르친다.

**첫째,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대”(시 19:1).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롬 1:20). 자연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그분을 찾지만 하면 얼마든지 그분을 알 수 있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지만 자연 속에 나타난 계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것은 그 누구도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둘째, 하나님은 역사(歷史)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히 1:1,2).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배울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울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인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기록의 중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분의 지상(地上)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데 있어서 성경은 자연이나 역사보다 훨씬 탁월하다.

**넷째,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성령님의 조명(照明)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개인들 각자에게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개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한 계시이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리석은 것들’로 느껴질 뿐이다(고전 2:14). 성령님의 조명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과 역사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실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자연과 역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성령님의 조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는 바로 누가복음 24장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후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낙심하고 있다고 물으셨으며, 그들은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른 채 이렇게 말했다.

“큰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덤에 가본 어떤 여자와 남자들이,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말했지요.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눅 24:27).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았다(눅 24:31). 이것이 바로 ‘조명’이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것이다. 결국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눅 24:45). 그분의 말씀을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





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 그가 읽은 것들에게 빛을 비추어주시기를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성경과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경 말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으며,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확신했다. 그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경의 교훈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고 믿었다. 그는 “성령님이 없는 성경은 죽은 책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 안내서인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와서 성경의 면지(책의 앞표지와 뒤표지 안쪽의 백지)에 서명을 해달라고 했지만, 루터는 “지화가(유대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요 8:25)는 성경구절 하나를 적어 넣었다. 그리고 루터는 이 성경구절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원하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배우게 된다. ‘먼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먼저 듣지 않는다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보거나 알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구원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모두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하나님은 이런 시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을 떠난 노력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책인 성경을 마음속 깊이 품어라. 그분은 성경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벤치 아래로 다니는 쥐들이나 설교단 위를 날아다니는 파라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는 천사나 짐승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경 말씀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의 인도와 성경 말씀에 우리의 눈이 떠질 때 우리의 삶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최재 | 문종순 성도

제임스 보이스, 기독교 교양  
(godpeople.com에서 인용)

## “사연을 듣기 전에 판단하지 마시다”

글 | 담임목사 김성택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 18:13]

벌써 몇 년 전에 일이다! 친구의 형님이 운영하는 상점에 불일이 있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 상점은 간혹 돈을 구걸하는 결인들이 들어오곤 하였다. 그 날도 행색이 남루한 할아버지 한분이 상점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형님은 문 앞에 앉아 있던 나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그 결인에게 주라고 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서는 그분에게 인심이나 쓰듯이 1,000원짜리를 내밀었다. 그런데 돈을 받아서 나갈 줄만 알았던 아저씨가 노발대발 화를 내었다.

“내가 거지로 보이냐? 너놈은 이려고 다니면 다 거지로 보이냐?” ... 씩씩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가 땅에 닿도록 빌고 또 빌어야 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나는 의자에 걸터앉아 한 손으로 동냥을 주듯이 천원을 내밀었으니! 그 할아버지 보시기에 눈꼴사납게 보였을 것이다.

우리는 참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과, 외모를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린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정죄하고, 성급하게 결정 내어 버린다.

우리는 결과의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 내 눈

에 나타나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결인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잘못되게 보인다. 그 사람은 당연히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이기에 욕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설사 그분이 틀렸다고 해도 그분에게 그 일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급하게 판단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조롱했다. 예수님이 몸을 파는 창녀들의 친구라고 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조롱했다(요 7:10-23)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았고, 그것이 성경을 지키는 율법인줄 알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저주한다. 그들을 반역자라고 저주한다.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비난한다. 그 유대인들은 대대로 그리스도의 피 값을 받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 유대인들이 당하는 불행과 그들이 당하는 아픔을 당연히 한다.

성경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 7:24]”



“봄! 내 안에 너 있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롬11:36)



취재 | 박정란 집사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 자이시다. 모든 권능과 주권이 그분께 속해있으며 사람의 역사뿐 아니라 모든 자연도 그분의 섭리 하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러나 자연 속에 그분의 섭리를 바라볼 틈도 없이 늘 반복적이고 스펀디한 삶으로 지쳐있는 우리..

잠시 일상을 접고 눈을 들어 먼 산을 한번 바라보자. 마치 고개를 끄덕이며 수궁이라도 할 것처럼 대지가 입을 벌리고 있지 않은가?! 마냥 정지해 있을 것만 같던 빈들이 주님의 따뜻한 입김으로 깨어나 새 생명을 틔어낸다. 아롱아롱 보일 듯 말 듯 어린 새싹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얼었던 개울물은 제 존재를 알리듯이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 어느새 소리없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봄기운에 겨우내 웅크렸던 우리네 가슴이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본다.

아~~~봄이다! 둘러보니 여기저기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듯 고운 빛깔을 내며 제 모습을 뽐낸다. 햇병아리의 옷을 보는듯한 노랑 빛이, 수

줍은 새색시의 혼수이불에 담겨진 분홍 빛이,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

을 덮었던 보자기의 풋풋한 연두 빛이.. 자꾸만 자꾸만 눈 안으로 들어온다. 아니 마음에 들어와 가슴을 쿵쿵 설레게 만든다. 또 숨쉴 때마다 그가 뿜어내는 향대로 코와 입이 상쾌해진다.

이렇듯 다채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봄!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봄의 교향곡~~ 아마 올해의 봄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봄이 될 것이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이들 에게도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길 소원해본다.

봄..! 모두가 평범히 누릴 수 있는 이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는 좀더 특별하게 소중하게 누리보자!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자연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봄! 내안에 너 있따~!

### 1. 입맛 돋우데는 이만한게 없다! 새콤 달콤한 봄동겉절이~



큰 볼에 간장, 소금, 식초, 설탕, 깨소금, 고춧가루, 다진 마늘, 파를 넣고 미리 양념장을 만든 후 깨끗이 씻은 봄동을 넣고 쓱쓱쓱 버무려~~ 마지막에 매실을 살짝 넣어 감칠맛을 더해주시면~! 군침도는 겉절이 완성~

### 2. 춘곤증아 어여가라! 취나물무침~



된장, 간장, 들깨가루, 다진 마늘과 파, 들기름, 양파 슬라이스에 소금물로 데친 취나물을 꼭짜서 먹기 적당한 한 두번 썰어 조물조물~~버무려~~그리고 참깨로 한번 더 마무리하세요.

### 3. 우유를 이긴 칼슘의 여왕! 돛나물 고추장무침~



고추장, 다진마늘, 매실, 깨소금을 넣은 양념장에 양파 슬라이스, 대파 슬라이스, 돛나물을 넣고 조식조식 사~알 살 버무려요. 돛나물은 연약해서 몽그러지기쉬워요. 마무리로 참깨와 참기름을 넣어 고소한 맛까지 잡아주세요.

### 4. 봄나물의 대표선수! 냉이아~



고추장, 다진 마늘과 파, 매실, 참기름을 넣고 준비한 양념장에 소금물에 데쳐낸 냉이, 진미채를 넣고 맛나게 버무려~~ 그위에 참깨를 넉넉히 뿌려주세요~~

싱싱하고 맛있는 봄나물로 건강을 채우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묵 상]** 초등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사님과 Q.T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큰 거목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열심히 전할 것입니다! 내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 QT로 열리는 삶

**본문 : 요한복음 12장 37-43절**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 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술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6학년 권 00**

**결 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  
**기도제목:** 부끄럽지 않게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5학년 박 00**

**결 심:** 오늘부터 하나님께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것이며 기도할 때 좋은 기도를 할 것이며, 전도도 할 것이다!  
**기도제목:** 친구들을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4학년 박 00**

**결 심:** 앞으로는 한가지 일을 끈기 있게 하겠다.  
**기도제목:** 전도하도록 노력하겠다.

**6학년 오 00**

**기도제목:**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천국을 가게 하고 싶다!

**4학년 김 00**

**기도제목:** 사람들과 친구에게 칭찬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주세요~

**4학년 조 00**

**결 심:**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칭찬 받는게 더 좋다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한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4학년 심 00**

**기도제목:** 하나님께 계속 기도 드릴것이다.

**5학년 진 00**

**기도제목:**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4학년 김 00**

**기도제목:** 부모님들과 친척모두가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4학년 이 00**

**결 심:** 어느 장소에서 기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놀리더라도 상관 안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도를 할 것이다.  
**기도제목:**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전도할 것이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어디서나 기도 드릴 것이다.

**6학년 김 00**

**기도제목:**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부끄러워 하지 않게 해주세요!



# “회복과 치유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족”



봄의 문턱에 선 2월 27일, 3일간 패밀리기도회가 열렸다. 모처럼 본당에 유치부부터 청년, 장년까지 가득히 모여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된 시간들. 소중한 가족과 함께 한 패밀리 기도회의 뒤 이야기를 들어보자.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들을 둔 모 집사님의 간증이다. 학교 다녀온 아들은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웃음기 없는 인사만 알 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건넨다. 엄마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그마저도 귀찮아 하는 아들, 1차 사춘기를 거쳐 2차 방황기, 3차 방황기까지 겪는 아들을 보며, 나는 장난꾸러기였지만 천진하고 재잘재잘 떠들기 좋아하던 유년시절의 아들이 한없이 그림기만 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어 버렸을까? 이런 아들을 데리고 과연 패밀리 기도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을까? 며칠 전부터 권면은 했지만 역시나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는 아들을 두고 그저 주님께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큰딸, 아들과 함께 참석하게 된 패밀리 기도회의 마지막 날,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선물을 주님께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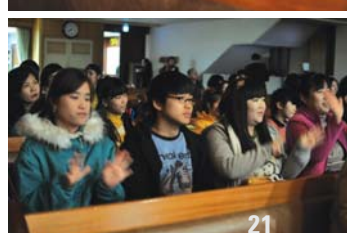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포옹하며 기도해주라는 목사님의 지시가 있었고, 나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아들이 뿌리치기라도 하면 망신일 텐데... 하는 마음에 선불리 안아주지 못하고 망설였다. 결국 용기를 내어 안고 기도해주었다. 아들은 엄마를 뿌리치지 않았다. 도리어 엄마를, 아빠를 꼬옥 안아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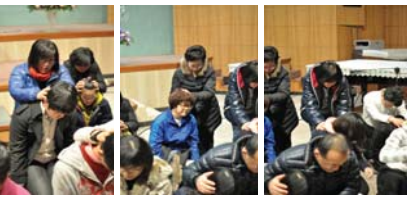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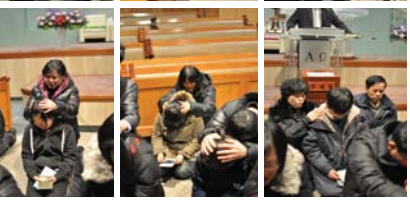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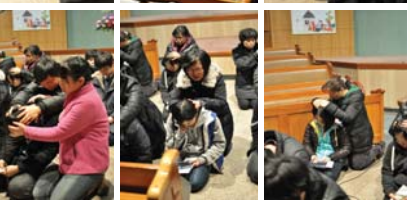
그 순간 깨달았다. 애기였을 때 안아보고 그날 처음 아들을 안아보았다는 것을...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지난 날에 대한 후회들이 내 가슴을 후려치고 있었다. 아이를 안는 순간 어긋났던 감정들이 아무 말 없이도 사르르 녹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지금은 그 아들의 눈빛부터 변해 있다. 냉랭했던 집안 분위기가 오랜만에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렇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제일 소중하며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감정을 표출하며 상처주기를 서슴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행복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던 패밀리 기도회.

이 시간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곧 있을 새 학기,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큰 비전을 발견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열렬렬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유치부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처음엔 어색하던 기도의 시간들도 3일째가 되던 날엔 모두들 뜨거운 눈물과 감동을 느끼며 함께 기도하였다.

“저도 패밀리 기도회를 통해 아들의 성숙해진 모습을 보았어요.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기도회 뒷얘기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쉴 켄리’를 제공해준 이정미 집사님의 얘기이다. “고 3이 되면서 유년부





보조교사도 맡았지만 광평이가 늘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이번 기도회도 첫날은 빠지고, 둘째 날은 부끄럽게도 유년부 학생이 오히려 선생님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겨우 참석하게 되었어요. 셋째 날은 아예 안 갈 생각으로 친구들과 약속까지 잡았더라구요. 당장 전화해서 호통쳐가며 불러 앉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광평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의 자녀로서도 교사로서도 알아야 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다 올해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에 입학한 김수진 청년에게는 또래 친구들처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 기쁨이었다. “작년 유년부 캠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입시를 준비했어요. 애초에는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응답하셨고 유년부 교사로 봉사하면서 가졌던 아동교육과 복지에 대한 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패밀리 기도회 동안 비록 저는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고 가슴이 벅찼어요. 저도 곧 가족과 함께 할 날이 오겠죠?”

내년 패밀리 기도회에는 또 어떤 회복과 자유와 감동이 있을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늘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다음을 기약해 본다.

글/취재 이혜진 집사



## 교회소식

### 1 세례식

• 일 자 : 3월 31일 오후 2:30 • 대 상 : 입교, 학습, 세례자

### 2 성경퀴즈대회

• 일 자 : 4월 21일 오후 2:30 • 주 관 : 청년부  
• 범 위 : 사도행전, 로마서 • 참 가 : 중고등부, 청년부, 여·남선교회

### 3 유아세례

• 일 자 : 5월 5일 오후 2:30

### 4 어린이 찬양경연대회

• 일 자 : 5월 12일 오후 2:30 • 참 가 :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 5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자 : 5월 17일 • 장 소 : 미정



## 캠페인

### 함께 지키는 에티켓

표어: 예배에 또 늦으셨다구요?!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



1

10분전에 오셔서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지하철탑승시간보다 더 정확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착석해주세요.  
은혜는 제일 많이 받고 싶지만 미리부터 앉아 있는 건 싫어!  
일단 가방부터 던져~! 아니아니 아니되요!?

3

헌금은 가정에서부터 준비해주세요.  
아재! 헌금봉투 갖고 오는 걸 까먹었다. 전도사님~아~임!  
마음과 함께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더 기뻐합니다.

2

4

교회차량 탑승자들은 동승하는 교인이 예배에 늦지 않도록  
미리5분전 대기해 주세요.  
어떡하죠~?! 추우니까 조금 더 집에 있다가 나갈래~  
요 설것이지만 끝내고 나가야하~ 아니아니 아니되요!